

# 호남 숨은 애국지사 34명 독립유공자 인정

### 민국 설움에 목숨 끊은 김기순·만세시위 학생 동참시킨 박성집 등 보훈처 전수조사 발굴...유공자 기준 별급형·퇴학 처분까지 완화

곡성군 옥과면에 거주하던 유림 김기순(당시 57세)은 고종의 승하(1919년 1월 21일) 소식을 듣고 고종이 일제에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여겼다.

그는 나라 잃은 설움에 한참을 통곡하다 1919년 2월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19년 4월10일 오전 9시 박성집(당시 32세)은 동네주님 300여명과 영암군 군서면 영암보통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이 교직원의 만류 때문에 만세시위에 동참할 수 없자, 박성집은 교실을 일일이 돌다니며 학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잡힌 박성

집은 태 90도(매질 90대)형을 받는 등 큰 고초를 당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기순(건국훈장 애족장)과 박성집(대통령 표창)의 애국정신은 100년이 지나서야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며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북 출신 항일지사들이 새롭게 발굴됐다. 34명의 지사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중 여성도 11명에 이른다.

지난 2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3·1운동과 학생운동, 의병, 국내·외 항일운동 등을 통해 독립에 기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333명을 발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 지난해 3

·1절 계기 포상이 5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신규 독립유공자 중 건국훈장은 26명(애국장 8, 애족장 18), 건국포장은 10명, 대통령표창은 297명,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75명이다. 광주, 전남·북에서는 모두 34명이 등록됐으며 이중 여성은 11명이다. 학생독립운동 관련 유공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기존 유공자 등록기준이 수형 3개월 이상에서 별급형, 퇴학 처분까지 완화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운동 관련은 7명, 자결·소작쟁의 등 항일운동 관련은 7명이다.

이번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중 퇴학처분으로 이름을 올린 애국지사는 1926년 11월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 4학년 재학 중 비밀결사모임 성진회에서 활동하며 1928년 6월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퇴학

처분을 받은 장성출신 김창주(대통령 표창) 등 광주·전남 5명, 전북 1명이다.

또 1932년 6월 영암에서 일본인 지주 집으로 들어가 빼앗긴 토지의 부당함에 대해 꾸짖다 일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원 처분을 받은 최병호(당시 26세)도 완화된 기준 덕분에 유공자(대통령 표창)로 등록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립유공 포상자는 건국훈장 1만965명, 건국포장 1280명, 대통령표창 3266명 등 총 1만5511명(여성 432명)에 달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각 읍면별 범죄 연명부·수형기록·판결문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공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유공자 등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여성과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전에 1000만원 인출했는데 오후에 또 2000만원?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범 딱 걸렸네

광주은행 완도지점 2명 표창장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완도군 광주은행 완도지점을 찾은 5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은행 여직원 B씨와 C씨의 눈엔 이 여성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원을 인출해 간 여성이었다. 그리고 보니 A씨의 행동도 이상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두 여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며 A씨

를 붙잡아 놓는 기지로 발휘했다.

이들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조직 50대 여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은 광주지방경찰청과 공조 끝에 인출책에게 건네 받은 현금 1000만원을 조직에 입금하고 도주한 공범 1명도 같은 날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체포하는 성과도 냈다.

완도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하고, 제2의 피해를 막아낸 광주은행 완도점 은행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는 시민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빠른 판단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낸 은행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 전두환 방청권 8일 배부 광주지법, 11일 재판

법원이 오는 11일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65석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배부한다. 응모를 마치고 돌아간 당청자에게는 휴대전화로 당첨 사실을 알리고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한다.

한편 지난달 25일 법원 인사에 따라 전씨 사건의 새 재판장은 광주지법 형사8단 독 장동혁(50·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흥겨운 입학식 전남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식이 열린 지난 28일 민주마루 강당에서 전남대 댄스 동아리 '뉴에라' 팀원들이 흥겨운 율동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지법, 소상공인 신용보증제 악용 대출 사기 일당 38명 적발

신보재단에 재발방지책도 제안

광주지법이 가짜 사업장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을 적발했다.

광주지법은 이번 사건이 서민경제 지원 제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수사과정에 드러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도 제안했다.

광주지법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대출명의를 모조품 업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받게 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총책 A(49)씨 등 대출알선에 참여한 7명(3명 구속·4명 불구속)을 기소하는 등 총 38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31명 중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12명은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대출명의를 수습명을 모조품 업체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최소한의 비품을 갖춘 가짜 사업장을 개설해 광주신용보증제

단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명의를 농수산물 유통업, 식당,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서와 재단의 실사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 등을 꾸미고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챙겼다.

광주지법은 앞서 지난해 직장이 있는 것처럼 급여명세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피의자의 신용보증재단 대상 범죄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

대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광주 신용보증재단측에 ▲실질적 사업장 실사를 위한 점검 항목 도입 ▲신용보증 이후 사업장 운영 중간 점검 ▲새무서 협조를 받아 사업장 매출 내역 확인 ▲허위 사업장 형사고소 등 강도 높은 대응 대책 등을 담은 재발방지책을 제안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피고인 명단을 통보해 구상권 행사로 국고손실 사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유사범죄를 강력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악수하는 척 돈뭉치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구속 기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정자법 위반 '혐의없음'

광주지법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나선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6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악수하는 척하며 5만원권을 건네는 수법으로 620만원을 전달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이같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A씨가 조합 대의원 등에게 추가 돈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최초 제보자 4명에게 각각 2000만~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취 혐의로 고소된 임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임청장과 친분 등을 가장해 최씨에게서 금품 수백만원을 받은 '브로커' 주모(68)씨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소장을 낸 주민 최모(73)씨는 임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시절 취업알선비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수사결과 임 청장은 최씨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취업 등 부정한 대가는 없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누구 전화야?" 문자... 의심했다며 여친 때린 20대 경찰서행

○...누구 전화야라며 자신을 의심한 5살 연상 여자친구를 체증계로 때린 20대가 경찰서행.

○...지난 2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27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32)씨의 상의를 팔을 잡아당기고 체증계를 들어 손목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A씨는 원룸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걸려온 휴대전화 소리를 듣고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고 캐묻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여자친구의 행동에 순간 화가 나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